

설 가정 예배

설 명 절 을 맞 이 하 여 한 해 동 안 베풀 어 주 신 은 혜 와
사 랑 에 감 사 하 며 하 나 님 께 예 배 드 립 시 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38장 다 같 이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 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 도 가족중에서
성경말씀 4장 1-4절 가족중에서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설 교 부르심의 소망 설 교 자

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로, 한 해의 시작인 새해 첫날을 뜻하며 ‘낯설다’ 혹은 ‘삼가다’라는 옛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날이 허락되었으며 어떻게 이 새 날을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부르심이 있는 삶 (1,4절)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절(엡 4:1,4)에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음을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이해하여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가까운 이에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 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나거나 또 못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내가 원치 않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과 완성이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런 새 날을 허락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2-3절)

새 날을 살아가는 신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이에게 면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어 그를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혹여나 못한 모습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이것을 유념함으로 새 날을 허락받은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 도 설 교 자

찬 송 620장 다 같이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 주님이 뜻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기 도 다 같이

식사기도 가족중에서

2026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동부교회